



“이제야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피겨여제’ 등극 김연아 인터뷰

26일(한국시간)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겨여신’에 등극한 김연아(20·고려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언제 울었느냐는 등 쾌활한 미소로 생글거렸다.

평생의 목표였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는 “울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경기를 마치자 헤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신 기자들의 관심에 미소로 답변을 이어가던 김연아는 영어로 말해 달리는 질문에 “I can't believe it(정말 믿을 수 없다)”이라며 유창하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연아와 일문일답.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소감은?

▲오랜 기간 연습했는데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고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쁘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프로그램을 모두 클린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점수도 너무 잘 나왔다.

▲그동안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올림픽이라고 긴장하지 않았다.

▲연기장을 마친 뒤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왜 울었는가?

▲그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다른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 왜 우리는 지금 궁금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울지 않을 줄 알았다. 근데 왜 울었는지, 내

생각에는 이제야 해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시원해져 눈물이 나온 것 같다.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통프로그램에서도 ‘클린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신있었나?

▲통프로그램에서 ‘클린 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주 오랜만인 것 같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지만 그때 통프로그램은 클린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 때에는 를린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항상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제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다음 목표를 생각하겠다.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밴쿠버 일정이 마무리되면 토론토로 돌아가 대회를 준비할 것이다.

/연합뉴스



김연아가 26일 오전(한국시간) 피겨 프리스케이팅이 열린 캐나다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시상식 후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마오는 고개를 숙인채 은메달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 언론들도 극찬

김연아가 26일(이하 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점(228.5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급급기사를 송고한 뒤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일본 교도통신=영문 기사에는 ‘아사다는 김연아의 벽을 넘을 수 없

었다’고 쓴 뒤 ‘대승을 장식한 김연아는 마치 남국의 해변에서 피나 콜라다를 마시는 것처럼 손쉽게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AFP=‘무결점’ 김연아가 그녀의 이름값을 지키며 금메달을 따냈

는 김연아의 플레이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AP=‘김연아의 연기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 중 하나로 전해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음악에 대해

펼쳐야 했던 마오에게는 모든 것이 불공평했다. 도저히 더 잘할 수 없었고, 근접하기조차 어려웠다’면서 아사다가 트리플 앤셀(공중 3회전 반점프)을 두 번이나 뛰었지만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no contest)’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연아가 마침내 감정에 북받쳤다’면서 지난 수개월간 냉정했던 김연아가 눈물을 훔친 장면을 자세히 전했다. ‘스코어

(150.06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김연아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이어져온 우승 후보 징크스를 날려버렸다면 그녀의 무한한 지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야후재팬=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日 교토통신 “마오, 연아의 벽 넘을 수 없다”

광주 개나리 내달 18일 ‘꽃망울’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시기는 예년보다 약 5일 이르고 작년보다는 약 3일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 개나리는 3월 18일, 진달래는 3월 22일까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개나리는 3월 11일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남부 및 영남 동해안 3월 13~20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1일~4월 1일, 중부 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각각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경찰 금은방 3인조 강도 주범 검거까지…

“고향 찾아온다” 예감적 중

32일간의 추적 끝 개가

“김○○!”, 지난 25일 오후 7시45분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J우체국 앞, 영광경찰서 형사 2명이 검정색 모자를 쓴 채 J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빼내 나오던 영광 금은방 강도사건의 주범 김모(42)씨를 덮쳤다.

김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형사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15분께 영광군 영광읍 B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2억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뒤, 32일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영광 금은방 3인조 강도사건’ 주범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영광경찰서 형사 11명이 무려 열흘 간이나 잠복한 끝에 올린 개가였다.

김씨는 범행을 공모한 공범 강모(47)·문모(33)씨 등 2명은 지난 8일 붙잡혔었다.

어찌 보면 우직하기까지 한 이번 잠복근무는 경찰의 확신에 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김씨의 고향이 동두천시인데다 이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 반드시 고향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이었던 점을 감안한 정

확한 판단이 주효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과거 경기도 동두천·의정부·포천시 일대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른바 ‘대포차·대포폰’을 구입·사용해온 김씨를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도과 자금은 친척 명의로 된 현금카드에서 빼내 사용했다.

또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허름한 여인숙을 은신처로 삼았다. 은신처에서는 하루 이상 묵지 않았다.

경찰은 추적 끝에 김씨가 고향에 온 사실을 알게 됐고, 은행·여인숙·원룸 밀집지역 등에 형사들을 배치했다.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김씨가 은신처를 마련할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J우체국을 찾은 것이다. 두 차례 눈 앞에서 김씨를 놓친 경찰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장물 처분 여부와 여죄 등을 추궁 중이며, 26일 김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고향이 동두천시인데다 이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 반드시 고향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이었던 점을 감안한 정

북구 각화동)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세들어 사는 임모(70)씨로부터 월세 대신 50만원 상당의 캐피탈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소유권이전 없이 12월10일 김모(57·동구 산수동)씨에게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세입자이자 승용차 원 주인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직장암으로 숨졌다.

박씨 등은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돈봉

■ 시내버스 노선 임시변경

노선번호 현행▶변경

첨단 20 ▶첨단~염주사거리~화정남초~로끼아이파트→염주주공

풍암 61 세하동~대동고~문화전당▶매월동~대동고~문화전당

상무 64 상무지구~5·18자유공원~비엔날레전시관

대촌 69 ▶상무지구~전남고입구~양동시장역

대촌 71 구소~매월동~양동시장▶매월동~양동시장

진월 77 노대~대동고~세하동▶노대~대동고~매월동

진월 78 이동~대동고~세하동▶이동~대동고~매월동

송정 99 용봉마을~문촌~양동시장역~용봉마을~문촌

대촌 170 도래~대촌동 시무소~대인광장▶대촌동시무소~대인광장

대촌 270 매월동~전남고입구~구소▶매월동~전남고입구~상무지구

* 벽신동 소재 연료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08:00~13:00까지 진입로 통제

을 통과해 서구문화센터~서창교 차로~서창파출소~칠석동 등을 거쳐 반환점 남평교를 돌아오는 풀코스 구간과 서창교차로에서 돌아오는 하프코스, 풍금사거리 인근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진행 된다. 또한 5km 구간은 월드컵경기장 서문을 나와 중흥마을 사거리~원광대한병원~짚봉터널을 거쳐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차량 도난 신고 40대 성추행 틀통

○…여중생 2명 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가 피해여중생들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사설을 신고했다가 범행이 들통.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5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광주 모 중학교에 다니는 이모(14)양을 성추행한 뒤 이양 등 여중생 2명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성매수를 하려한 혐의.

○…김씨는 여중생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강제로 운전을 시켰으나, 자신이 돈을 찾으려 편의점에 간 사이에 이양 등이 차량을 몰고 달아나자 차량도난신고를 냈다가 범행이 단로.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자농협장 후보 5명 오늘 영장심사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복종열 영장전 담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협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인 임자농협 조합장 출마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실질심사에서는 조합장 당선자 박모(64)씨를 비롯, 김모(49), 또 다른 김모(58), 또 다른 박모(65), 고모(53)씨 등 선거 출마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박씨 등은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돈봉

투를 건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는 방법으로 개인에 따라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3천여만원 정도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씨 등은 대량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합장 선거 이후 불거졌던 ‘금품 선거’ 관련 수사가 굽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선거 직후 ‘금품 선거’ 의혹이 일자 조합원 1천939명 가운데 7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김병관기자 dss6116@

